

쟁쟁한 마스터들 진실된 음악의 순간을 선사한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 국민 가수 최백호, 소프라노 임선혜, 명창 장문희, 재즈 대모 윤희정, 뮤지컬 디바 최정원까지, 쟁쟁한 마스터들이 진실된 음악의 순간을 선사한다.

11월 10일 첫 방송을 앞둔 Mnet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에 출연할 여섯 명의 마스터가 베일을 벗었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은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에 공연·밴드 마스터로 출연한다. 1,000회 이상의 단독 공연을 기록한 그는 말이 필요 없는

국내 공연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1집부터 현재까지 모든 음반을 직접 제작하며 발라드,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냈다. 좋은 음악과 공연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쏟아내는 음악인이기에 그가 선보일 무대에 관심이 집중된다.

클래식 마스터 임선혜는 유럽 고음악계의 유일한 동양인 프리마돈나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 내달 10일 첫 방송 이승환·최백호·윤희정·최정원 등 출연

이자 세계 정상급 소프라노다. 1999년 23세의 나이로 유럽 무대에 데뷔, 현재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베를린 슈타츠오페라, 함부르크 극장 등에서 공연하고 영국의 그라모폰 음반상, 독일 비평가상 등 유수의 음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해외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소프라노로서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을 통해 품격 있는 무대로 클래식계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해 줄 것이 기대된다.

전체 소리꾼 장문희는 국악 마스터로 나선다. 7세 때부터 소리를 익혀 2004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20대의 나이로 심사위원 7명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는 진기록을 세우며 장원(대통령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악계에서 인정받는 여성 명창인 그녀는 우리의 전통 음악이지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국악의 진수를 알리기 위해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 출연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즈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이자 대한민국 재즈의 대모인 윤희정은 재즈 마스터로 출연을 확정 지었다. 포크 가수로 데뷔한 후 1992년 재즈계의 거장 이관근 선생에게 사사 받은 후 재즈로 전향한 그녀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직접 가르쳐서 함께 무대에 오르는 '윤희정&프렌즈' 공연을 진행하고 2013년부터는 '재즈 프렌즈' 파

를 노래하는 국민 가수 최백호다.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는 덩달아 배워내는 목소리의 깊은 울림으로 사랑 받는 음악인이다. 아이유, 옥주현, 어반자카파 등 젊은 후배들과 콜라보레이션하고, 독립음악인들을 위한 창작 지원 공간인 '뮤지스페이스'의 소장자가 원로 가수들을 후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음악발전소의 대표로 대중음악의 전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재즈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이자 대한민국 재즈의 대모인 윤희정은 재즈 마스터로 출연을 확정 지었다. 포크 가수로 데뷔한 후 1992년 재즈계의 거장 이관근 선생에게 사사 받은 후 재즈로 전향한 그녀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직접 가르쳐서 함께 무대에 오르는 '윤희정&프렌즈' 공연을 진행하고 2013년부터는 '재즈 프렌즈' 파

터로 재즈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뮤지컬 마스터는 뮤지컬계 대표 1세대 배우 최정원이다.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디바로 꼽히는 최정원은 '시카고', '페업', '맘미야' 등 대형 뮤지컬을 섭렵하며 30년 가까이 주연급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1년과 2010년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을, 2015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수십년 간 무대를 압도해 온 그녀의 열정이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에서 빛을 발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23일 공연·밴드 마스터 이승환의 단독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밴드와 함께 고요한 무대에서 히트곡 '천일동안'을 속삭이듯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든다.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 본 방송을 앞두고, 장르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높여주는 마스터 별 단독 티저 영상이 23일부터 6일 간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 공식 홈페이지 및 SNS에서 공개됐다.

음악의 공존'은 단 하나의 감동, 고품격 음악 예능 '더 마스터 음악의 공존'은 11월 10일 밤 8시 20분 Mnet과 tvN에서 공동 방송된다.

행복하지 않은 신데렐라에 시선집중... '황금빛 내 인생' 돌풍

행복하지 않은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흡수자들의 아우성으로 대가권이 채워지고 있지만, 하루 아침에 흡수자에서 흡수자로 바뀌었다고 '행복'도 자동으로 동반될까.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이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 시청자들을 자연스럽게 빨아들이며 방송 16회 만에 시청률 35%를 넘어섰다. 50회 중 절반도 안 가 거둔 성적이라 최근 수년간 방송가 '마의 벽'으로 통한 시청률 40%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 절정의 근처도 가지 않았으니,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를 찍을 때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TV '내 딸 서영이'로 주말극 대박 행진을 펼쳤던 주인공이다. 그 사이 사이 내놓은 '검사 프린세스' '49일' '투빅스' '두번째 스무살'도 모두 반짝이는 개성을 과시했던 작품이다. 소 작가가 가동하는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새로웠다. 이야기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작가는 그 길을 찾아내는 사람임을 보여줬다.

가난한 엄마가 자기 친자식과 부잡질 자식을 바꿔치기하는 식의 출생의 비밀 스토리도 사극과 시대극에서부터 많이 등장한 소재다. 그러나 '황금빛 내 인생'은 바꿔치기 당한 두 인물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대비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다른 길을 뚫었다.

돈에 치여 살면서 수없이 좌절했으나, 점차 재벌가 신데렐라가 되고 나서는 가시밭길을 걷고만 있는 주인공 서지안(신혜선 분)의 괴로움과 고뇌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보편성을 확장한다.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싶던 학자금 대출을 한번에 갚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백화점에 가서 3천만원 씩 쓰고 오라는 미션을 부여받고 VIP 신분카드가 손에 쥐어졌지만 서지안은 하루하루 수명이 단축돼 가는 느낌 속 불행에 갇혀있다.

처음에는 길러 준 옛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 후에는 자옥에 떨어진 듯 몸부림치는 서지안의 모습을 악녀가 잠시 잠깐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기에 공감대를 넓힌다.

출생의 비밀 스토리에 으레 출몰하는 뻔뻔한 악녀 대신 애면굴면 성

실하고 열심히 '노오력'하며 살아온 똑똑하고 착한 흡수자 서지안이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설상가상, 전직악인의 상황에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는 막장 없이도 충분히 흥미진진하다.

◇ 등장인물 모두의 내면 두루 만져

'황금빛 내 인생'의 등장인물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서지안의 엄마(김혜옥)가 평생 고생한 딸을 재벌가 친딸로 바꿔치기한 게 가장 큰 거짓말이지만, 그 외 인물들도 모두 자신만의 거짓말을 안고 산다.

서지안의 아빠(천호진)는 공사판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음에도 다른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서지안의 오빠(이태성)는 오래 사귀던 연인이 있음에도 집안 빛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 생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서지안의 남동생(신현수)은 공부 대신 사업 할 생각에 아르바이트하면서 대입 학원에 다닌다고 가족을 속이고 있다.

재벌가도 거짓말을 한다. 최도경(박시후)은 교통사고로 인해 약인으로 얽혔던 서지안이 얼마 후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자신의 여동생이 돼 나타나자 부모 앞에서 서지안을 처음 본 것처럼 행세한다.

음대생인 최도경의 막내 여동생(이디안)은 종종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오지만 부모에게는 연습하느라 늦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최도경의 이모(전수경)는 서지안의 정체를 밖으로 흘렸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

또 베트남 현지처를 두고 있는 사업가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는 아내, 첫사랑을 못 잊어 지금껏 복심으로 살았으면서도 첫사랑과 재회하자 유부남 행세를 하는 뺑뺑 사장 등도 있다.

소 작가는 거짓말을 매개로 이러한 다양한 인물의 처지와 내면을 두루 만지면서 서지안을 옥죄고 있는

거짓말이 어쩌면 누구나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짚는 동시에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껏 활용해 '황금빛 내 인생'의 극성을 끌어올린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달라는 서지안과 그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된 최도경의 상황을 억지스럽지 않게 전개하면서 긴장감과 스릴을 강화한다.

하지만 소 작가는 이 긴장감과 스릴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는다. 서지안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은 최도경이 서지안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드라마의 멜로로 순항하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리얼슬로우'로 첫 출발...휘성 표 몽환+섹시 '아로마'

휘성이 '리얼슬로우'라는 이름으로 대중과 마주했다.

휘성은 23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세 앨범 '아로마 (Aroma)'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휘성이 직접 리얼슬로우 컴퍼니를 설립한 후 리얼슬로우 해/모조리 들이키고 누운 채/피고 지는 꽃을 수천 번 보고 있지/현실에 없는 빛을 바라보는 기분 이 기분

부드러운 멜로디와 리듬감과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가 전반에 흐르는 가운데, 매혹적인 이성의 향

'아로마'는 과거 maxwell, d.angelo 등의 흑인 뮤지션들이 크게 유행시켰던 네오 소울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슬로우 잼(Slow Jam) 장르의 곡으로, 프로듀싱 팀 '사이타운'과 협업해 완성했다.

너에게 풍기는 체취에 난 민취해/모조리 들이키고 누운 채/피고 지는 꽃을 수천 번 보고 있지/현실에 없는 빛을 바라보는 기분 이 기분

부드러운 멜로디와 리듬감과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가 전반에 흐르는 가운데, 매혹적인 이성의 향

기를 아로마 향에 빚낸 감각적인 가사가 이 곡의 매력을 더한다.

특히, 휘성 특유의 세련된 음악에 최신 매력까지 더해져 이 곡은 최근 Mnet '쇼미더머니10'에서 활약한 헤시트윈의 피쳐링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헤시트윈은 반복적인 가사를 선보이면서도 빠져드는 래핑으로 몰입도를 높였다.

한편, 음원 발표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휘성은 11월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뮤지컬 '올슉업' 출연도 앞두고 있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음력 9월 5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 ▶ **황소** 36년생 금전관리잘하라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 한다.84년생 꿈을 접지마라.
- ▶ **사슴**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황염해**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0년생 산행을 삼가라.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 **해마**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5년생 기다림을 알라.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 **황염해**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52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8년생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 ▶ **황염해** 41년생 가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53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 ▶ **황염해** 42년생 욕심을 버려라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 **황염해**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 **황염해**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0년생 합심하면 이익이 크다.
- ▶ **황염해** 33년생 출입을 삼가라.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 ▶ **황염해**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46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 ▶ **황염해** 35년생 미련을 버려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다.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